

東아시아, 국제항공산업 黃金市場 浮上

걸프戰 과 경기침체등으로 90년 이 후 수렁에 빠져들었던 국제 항공기수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東아시아가 黃金市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잉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지난 70~89년에 전세계항공기 도입액의 14.1%를 차지하는데 그쳤던 亞太지역 항공사들은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21.0%까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각국에서 속속 탄생한 제2民航이 항공기의 대량 수요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아시아항공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항공기를 선호해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잉, MD, 에어버스 등 3社는 나름대로 개발중인 3백50~4백석규모의 대형항공기 판촉에 社運을 걸고 있다.

보잉이 4월 13일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으로부터 B-777機 22대를 무더기로 수주했는데, 이를 계기로 항공기제작3社가 더욱 눈에 불을 켜고 아시아로 몰려들고 있다.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社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에어버스社는 지난해 10월 처녀비행한 A-340의 판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여객기 부문에선 가장 뒤진 MD社도 대만과 손잡고 MD-12기종개발에 뛰어들어 맹추격을 벌이고 있다.

걸프전과 세계적 경기 침체등으로 전세계항공기 총주문이 지난 90년 1천2백28대에서 지난해엔 3분의 1수준인 4백67대에 그치는등 사상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국제항공업계는 아시아공략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 주력전투기 世代교체 돌입

1996년 부터 미국의 숲전투기 체제가 바뀐다. 美 공군과 해군이 4월 29일 下院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현재의 主力機인 F15기를 96년부터 차세대 전투기인 F22기로 대체하며, 해군

은 F18과 F14기대신 역시 차세대 전투기인 FA18 E/F기로 대체하게 된다.

美 국방부는 2010년까지는 총 3천5백억~5천억불을 들여 모든 항공전투기체제를 차세대기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93년에 산증 약 2조6천 억원(33억불)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날 下院 군사위원회 증언에 나온 메릴 맥피크 공군참모총장은 전투기의 생명은 대개 30년안팎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美공군의 주력

이던 F15기가 임무를 잘 감당했지만, 이미 소련이 F15기에 버금가는 SU27과 MiG29기를 내놓아, 이것이 가장적국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F15기의 우월성이 보장되지 못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美 록히드社, 2000번째 C-130 허큘리스機 인도



美 록히드 항공시스템社는 최근 2000번째 출고된 C-130 허큘리스수송기의 정규 비행평가를 마치고 켄터키주 항공방위대의 제 123수송대에 인도했다. 이 비행기는 미국 국방부가 구매한 C-130H 군용수송기로, 지난 5월 15일 록히드 항공시스템 본사에서 인도식이 거행되었다.

이 2000번째의 허큘리스기에는 내장형 항법 시스템(S C N S, Self-Contained Navigation Systems) 및 보호장비를 비롯한 여러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으로 장착되었다. SCNS는 조종사 대신 항법사 역할을 해주며, 보호장비는 전투상황에서 경고 및 교란용 금속파편 살포로 기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SATIN(Survivability Augmentation for Transport Aircraft-Now)이라고 불리는 이 보호장비는 수송기의 생존성 향상장치이다. 이제까지는 모두 항공기 일부를 개조해서 장착해 왔는데, 초기제작단계에서 부터 C-130에 장착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ATIN은 항공기를 보호해주고 적대상황을 전환시켜 주는데, An/AAR-47미사일 탐지시스템은 적의 열추적 혹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발사되었을때 조종사에게 경고를 해주며, AN/ALE-40 대응장치는 교란용 금속파편을 살포한다. SATIN의 디스플레이와 제어장치는 항법사 좌석 앞에 설치되어 있다.

美록히드 항공시스템社는 지난 35여년 동안 허큘리스기를 계속 발전시켜 월평균 3대꼴로 생산해 왔으며, 허큘리스기는 현재 40여종의 각기 다른 사양으로 전세계 62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C-130기와 C-130기의 商用기종인 L-100기는 지금까지 총 2천2백만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록히드는 지속적인 시스템 성능향상을 통해 최첨단 수송기로서의 허큘리스기의 명성 유지에 노력해오고 있다.

(자료제공 : Communications Korea)